

2019 정기구독, 지금 신청하세요!

세상을 살리는 여성들이 만드는

월간 한국 YWCA



구독료 1년 2만원

문의 02-774-0230 이메일 ywcapr@hanmail.net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관서발전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한국 YWCA

2019년 1·2월호
 January · February
 Vol.557

특집 정기총회

우리YWCA, 총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회원YWCA 신임회장·5부지역위원장

국제

제10차 한일YWCA협의회

여성

여성인권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니 시민장

청년토크

'저출산' 해결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과 미디어운동



1980년대 어린이 TV모니터링 간담회



1996년 제1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미디어가 무분별하게 발달하며 성차별과 사실왜곡, 혐오를 양산하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YWCA는 1980년대부터 방송과 언론의 영향과 역할이 크다고 판단해 미디어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큰 파급력을 가진 TV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다.

1983년 한국YWCA는 폭력적 장면과 왜곡된 성인식을 확산하는 TV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어린이 TV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성인채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었다. 주부로 구성된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폭력성, 성차별 등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간담회와 세미나를 열어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했고, 각 방송사, 방송위원회 등에 시정할 것을 건의했다. 시청자교실도 운영해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안목을 길렀다.

당시 정부의 언론통폐합으로 MBC(민간방송)와 KBS(공영방송)만 남게 되자 KBS는 공정한 방송운동을 위해 시청료를 받았다. 그러나 편파·왜곡·조작보도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성차별적 콘텐츠를 일삼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은 1984년 'KBS 시청료거부운동'을 펼쳤다. 한국YWCA도 'KBS TV시청료폐지운동 여성단체연합회'로 연대한 시청료폐지 촉진대회에 동참해 KBS 왜곡 보도사례를 발표하고 성명서를 냈다. 방송사에는 건의서를 보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는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YWCA 미디어운동은 시청자 주권을 확립하고 언론·방송 환경을 개선하는 자극제가 되어 1996년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제정으로 이어졌다. YWCA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담은 140여편의 방송 작품을 발굴해 시청자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방송 제작진에게는 새로운 도전의식을 심어주며 격려하고 있다. 언론·방송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한국YWCA 미디어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2019. 1·2 한국YWCA



표지이야기

1월 11일(금)부터 14일(월) 일본 교토YWCA에서 열린 제10차 한일YWCA협의회 한국YWCA대표단이 '문화의 밤'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9년 3월 주요일정

3월 1일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

3월 9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나비행진

3월 9일~18일

63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3월 21일

전국사무총장협의회

3월 27일

씽크머니 강사교육

제55권 제1호 통권 557호

2019년 2월 26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김은주·백수경·이경순
이은혜·이하나·정선경·조한나

편집 배정미·이주영·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지금 여기, 우리를 성찰하자 | 김은주
- 05 **말씀 묵상**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소서 | 박종화

특집 '2019년도 정기총회'

- 06 ①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현장 | 이주영
- 08 ② 회원YWCA 정기총회 현장 | 편집실
- 10 ③ 회원YWCA 신입회장·5부지역위원장 소개 | 편집실

- 14 **2019 신년예배** YWCA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 편집실

- 16 **국제** 제10차 한일YWCA협의회 | 문상순

- 18 **여성** 여성인권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니 시민장 영결식 | 문윤희

- 20 **청년토크** '저출산' 해결하려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 | 까칠·기쁨·슬픔·버럭

- 22 **이달의 현장 ①**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총회 | 박성연

- 24 **이달의 현장 ②** Y-틴 전국협의회 총회 | 신연진

- 26 **이달의 현장 ③** YWCA 키다리학교는 나를 성장하게 한다 | 박찬희

- 28 **이달의 현장 ④** 연합회 중점운동국 통합위원회 실험 현장 | 배정미

- 30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가버나움> | 정의영

- 32 **연합회 소식**

- 35 **회원YWCA 소식**

- 43 **정론지 <여·세> 6호 발간**

지금 여기 우리를 성찰하자



김은주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분연히 일어났던 그날의 합성을 기억하고 죽음으로 항거했던 선열들에게 감사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독립 국가를 수립하고 민주정치를 시작한 지도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8위의 위용을 자랑하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4.19혁명, 광주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흐르지 않았습니 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야 할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의 우리를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100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차별과 혐오와 증오가 난무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과연 어떤 새로운 100년을 만들 수 있을까요? 희망과 낙관보다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폴란드어로 '나는 증오한다.'는 뜻에 해당되는 단어인

니에나비제(nienawidze)는 어원적으로 '나는 보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증오는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약하고 부족한 것만을 봅니다. 나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넷이 열어놓은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연결을 만들어 내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린 세상은 다리가 아닌 무수히 많은 벽들로 구획된 크고 작은 닫힌 공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듣거나 보게 되면 '삭제' 버튼을 누르거나 되돌리기 화살표를 클릭하여 빠르게 나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차이와 다름이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 관점의 차이, 가치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차이가 차이로 존중받고 다름이 다름으로 공존할 수 없을 때 갈등과 분열이 생겨납니다. 차이와 다름과의 공존의 조건은 대화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자 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론 나의 생각과 믿음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국YWCA도 창립 97년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성찰하며 나와 다른 의견과 관점과 가치와 우선순위로 생긴 갈등에 대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말을 걸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소서



박중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마태복음 6장 33절~34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본회회 목사는 히틀러 치하 감옥생활 중 시편을 묵상하며 위로를 찾았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찬양을 창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찬양은 새롭지 않고 같은 노래일 수 있지만, 부르는 사람은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하나님', '새 예수님', '새 성령님'은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새로워짐을 얻고 새 사람으로 변해서 새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새 신앙입니다.

YWCA의 "Y"가 바로 이 '새'입니다. 우리가 항상 젊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연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옛것을 새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과 사람, 생각, 행함이 항상 젊어야 합니다. "W" 이런 새로운 여성들이 모인 곳이 YWCA입니다. 그리고 "A" 는 건물도 조직도 아닌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C"는 목적문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YWCA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며 하나님 자신의 목적입니다.

YWCA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활성화 시켜 주었고,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나라를 곳곳에 이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일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하늘나라에 이루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나라 주인이고, 곧 하나님나라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는 곳마다 하나님나라가 있습니다. YWCA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정의와 평화를 이루면서, 생명 나라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 나라를 만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YWCA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나라의 선발대입니다.

하나님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안에 있습니다. YWCA가 하나님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YWCA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동받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참석자들

이주영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부장

2019년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100주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YWCA를 위한 조직 구조와 사업 개편, 지속가능한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4대 정책과제인 탈핵생명, 성평등, 평화·통일운동을 통합 운영에 이슈 대응에 주력하고 연합회와 회원YWCA의 핵심 지도력 교육에 집중하기로 했다.

젠더관점의 탈핵, 성평등, 평화운동

올해로 창립 97주년을 맞은 한국YWCA연합회가 2월 13일(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콥스키홀에서 전국 52개 회원YWCA 대표, 한국YWCA연합회 회장단과 실행위원, 방청대표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한국YWCA 100주년을 앞두고 시대 변화에 따라 YWCA 정체성에 부합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갖추고 YWCA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과 구조 개편이 시급히 요청되는 가운데 사무회의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사무회의에서는 소개와 인사 시간에 이어 '1922 장학금 전달식'과 2018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19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합회 정관 개정과 회원Y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처리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세계 역사상으로도 평화시민운동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 '독립선언서' 제창 순서가 이어졌다.

이번 정기총회 첫 순서인 개회예배에서 채수일 경동교

회 목사가 '뱀과 비둘기 사이에서'를 주제로 설교했다. 채목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역사적 전환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여성들에게 역사를 기억하는 기독교인들의 자기 성찰을 강조했다. 이어진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연주 교수의 파이프로르간 연주는 정갈한 차이콥스키홀을 오늘의 결정이 100주년을 향한 YWCA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했다.

2019년도에도 한국YWCA는 핵심 정책으로 탈핵생명,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을 4대 추진 과제로 정했다. 특히 젠더 관점의 탈핵생명, 성평등운동을 통합 운영하여 이슈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YWCA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 기획과 구조를 개편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정했다. 미래기획과 청년YWCA 운동을 새롭게 구조화하여 한국Y 100년운동 역사아카이브 구축과 청년 리더십 육성과 지역 청년운동 활성화를 지속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한국YWCA를 꿈꾸다

한국YWCA 100년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조명하고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감사 강화에 대비하는 한편, '미래', '지역', '여성', '청년'의 키워드를 운동의 키워드로 삼고 아시아지역 YWCA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생명과 평화의 국제 연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2019년 한국YWCA는 회원YWCA의 현안 문제 해결을 당면한 우선 과제로, 한국YWCA지속가능한 미래 준비 기획과 구조 개편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조직 구조 개편을




5부지역위원회에서 경기지역위원회 대표들이 토의하고 있다.



회원YWCA 신입회장들이 특별 찬송을 하고 있다

바탕으로 한국YWCA 지속가능한 미래와 여성, 청년 운동이 활성화되는 운동 전략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정기총회 사무회의 순서 중에 1922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1922 장학금은 YWCA 창립정신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갈 Y틴, 대학·청년YWCA 소속 청소년에게 매년 1만원을 후원하여 1922명의 후원자가 창립 100주년까지 약 100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3년차로 창립 100주년인 2022년까지 매해 1,922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끝으로 정기총회에 참가한 190여명의 대표들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00년 전 3월 1일, 7개 도시에서 열렸던 만세 시위 현장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서' 전문을 함께 낭독했다.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감격을 나누며 3.1 만세운동의 감격을 지역에서 YWCA 정의·평화·생명운동으로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총회를 마쳤다.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3·1 독립선언서 전문을 읽고 있다.

우리YWCA, 총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북부지역

①서울YWCA 50년봉사상 시상 ②강릉YWCA 10년봉사상 수여식 ③속초YWCA 특별찬양을 하는 이사들 ④원주YWCA 어린이집 아동들의 특별찬양 ⑤인천YWCA 표창을 받은 대학·청년Y 회원들



서부지역

①광주YWCA 초를 들고 서약을 하고 있는 신·구회장 ②서귀포YWCA 단체사진 ③순천YWCA 생명숲돌봄센터 아동들의 오카리나 연주 ④여수YWCA 합창단 축하공연 ⑤익산YWCA 합창단 축하공연 ⑥전주YWCA 촛불 점화식 ⑦제주YWCA '함께 어울리자는 의미로 비빔밥을 나누는 모습



매해 1월과 2월이면 회원YWCA마다 정기총회를 연다. 지난해 활동을 평가하고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회원YWCA 총회 현장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사진을 보내온 40개 회원YWCA 소식을 모았다.

동부지역



⑦거제YWCA 회원들에게 떡국과 꿀을 나누는 모습 ⑧대구YWCA 동부지역위원회 비전 선언문 '도전·여성' 낭독 ⑨마산YWCA 성가대 특별찬양 ⑩부산YWCA 적극참여상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⑪사천YWCA 명예이사 추대 ⑫양산YWCA 평생회원증서를 받은 평생 회원들 ⑬울산YWCA 선서문을 낭독하는 이사·위원들 ⑭진주YWCA 어린이집 아동들과 증경회장단 ⑮진해YWCA 봉사상 수여 ⑯창원YWCA 거수표를 들고 있는 회원들 ⑰통영YWCA 모범직원상 수여 ⑱포항YWCA 단체사진



경기지역

① 고양YWCA 으뜸도우미상을 받은 가사도우미 회원 ② 남양주YWCA 물품후원 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 ③ 부천YWCA 단체사진 ④ 수원YWCA 어린이 회원들의 축하공연 ⑤ 안산YWCA 매년 총회 식사로 비빔밥을 먹는 회원들 ⑥ 의정부YWCA 우수돌보미 상을 받은 한울타리 돌봄회원들 ⑦ 파주YWCA 회장취임식에서 축가를 부르고 있는 회원 ⑧ 하남YWCA 합창단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중부지역

① 논산YWCA 바디워십 선교단의 축하공연 ② 대전YWCA 장학금을 받은 Y-틴, 대학·청년Y 회장단 ③ 서천YWCA 이사 인준식 ④ 세종YWCA 직원자녀 장학금 전달식 ⑤ 제천YWCA 경품 추첨 행사에서 상품을 받아가는 회원들 ⑥ 천안YWCA 총회사 낭독 ⑦ 청주YWCA 가아금 병창 공연을 펼친 요양보호사 회원 ⑧ 충주YWCA 희망세상을 상징하는 하트를 들고 찍은 단체사진



2019 회원YWCA 신입회장



강릉YWCA 방계자

- 2007~ 강릉Y 이사
- 2017~2018 강릉Y 부회장



동해YWCA 박경옥

- 2005~ 동해Y 이사
- 2007~2008 동해Y 회계이사
- 2009~2012 동해Y 부회장
- 2012~2014 동해Y 회장



경주YWCA 전영심

- 2014~ 경주Y 이사
- 2015~2018 경주Y 서기이사



목포YWCA 정이숙

- 2003~ 목포Y 이사
- 2007~2012 목포Y 부서기 이사
- 2013~2014 목포Y 회계이사
- 2015~2018 목포Y 부회장



고양YWCA 윤정애

- 2005~2013 고양Y 위원
- 2014~ 고양Y 이사
- 2015~2016 고양Y 서기이사
- 2017~2018 고양Y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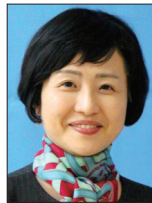
부천YWCA 최순영

- 1996~ 부천Y 이사
- 2015~ 부천Y 산모가사돌보미 협동조합 이사
- 2015~2018 부천Y 부회장



광명YWCA 정숙자

- 2016~ 광명Y 이사



서울YWCA 이유림

- 1993 한국Y연합회 간사
- 2005~ 서울Y 위원, 이사, 임원
- 2017~2018 서울Y 부회장



광주YWCA 정지운

- 2011~ 광주Y 위원, 이사
- 2016~2017 광주Y 서기이사
- 2017~2018 광주Y 부회장



서천YWCA 조순희

- 2001~ 서천Y 이사
- 2017~2018 서천Y 부회장



논산YWCA 이미형

- 2005~ 논산Y 위원, 이사
- 2013~2018 논산Y 부회장



안양YWCA 김오복

- 2000~ 안양Y 이사
- 2006~2008 안양Y 회계이사
- 2009~2018 안양Y 부회장

2019년 회원YWCA와 함께할 20명의 신입 회장이 선출됐다. 회원YWCA 신입회장들은 2월 12일(화) 연합회 강당에서 신입회장연수에 참석해 회원YWCA 회장의 사명과 역할을 고민했다. 섬김과 배려로 하나님나라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 2019년 회원YWCA 신입회장들을 소개한다.



의정부YWCA 김효숙

- 2002~ 의정부Y 이사
- 2015~2018 의정부Y 부회장



진주YWCA 정경옥

- 2003~2012 진주Y 이사
- 2013~2014 진주Y 서기이사
- 2015~2018 진주Y 부회장



인천YWCA 조철숙

- 1972~1985 청주Y 간사
- 1992~1993 인천Y 사무총장
- 2011~2012 인천Y 요양원사무국장
- 1995~2018 인천Y 이사, 임원



춘천YWCA 이미경

- 1996~1998 춘천Y 위원
- 1999~ 춘천Y 이사
- 2009~2011 춘천Y 서기이사
- 2015~2018 춘천Y 부회장



제주YWCA 이정필

- 2002~2018 제주Y 통합상담소 위원장
- 2014~2018 제주Y 부회장



파주YWCA 황유순

- 2007~ 강릉Y 이사
- 2017~2018 강릉Y 부회장



제천YWCA 이영순

- 1994~ 제천Y 회원
- 1999~ 제천Y 이사
- 2009~2010 제천Y 회장
- 2017~2018 제천Y 회계이사



포항YWCA 성명희

- 2001~ 포항Y 합창단 임원
- 2011~ 포항Y 이사
- 2017~2018 포항Y 부회장

5부지역위원장

경기지역위원회



안산YWCA
양애자

동부지역위원회



부산YWCA
홍순옥

북부지역위원회



인천YWCA
조철숙

서부지역위원회



전주YWCA
권경미

중부지역위원회



청주YWCA
김옥순



1월 3일(목)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연합회 회장단과 임원, 실행위원을 비롯한 명예연합위원, 5개 회원YWCA 회장단과 회원, 실무자 등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9년 신년예배가 열렸다.

YWCA 발자취를 돌아보다

2019년 신년예배가 1월 3일(목)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주를 신뢰함으로 함께 시작하는 새 출발'을 주제로 열렸다. 강당 한편에는 2019년도 52개 회원YWCA의 기도제목과 소망을 적은 종이를 전시했다. 참가자들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쓸 회원YWCA의 활동과 지도력을 위해 기도했다.

한영수 회장의 인도로 참가자들은 'YWCA 선배들의 목소리'를 목상했다. 영상에는 한국YWCA를 창립한 김필레, 총무였던 박에스터, 이희호 선생을 비롯한 YWCA의 역사를 이어나온 선배들의 음성이 생생하게 담겼다.

박에스터 선생은 평화교육을 비롯해 YWCA가 사회에 예수의 사랑을 펼치길 강조했고, 이희호 선생은 여성운동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YWCA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이어가기를 소망했다. 부회장이었던 김현자 선생은 사람중심의 YWCA가 될 것을 이야기했다. 참가자들은 선배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YWCA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목적문

을 한 목소리로 읽었다.

예배자들은 성경 예레미야 33장 25절부터 26절을 교독하고 찬송가 '은 천하 만물 우러러'를 노래했다. YWCA 회원기도 '주를 신뢰함으로 YWCA 목적과 함께 시작하는 2019년도'를 낭독했다. YWCA 회원기도는 5부지역위원장, 10대 청소년 회원부터 20~30대 청년 간사, 80대 중경회장으로 구성된 YWCA 활동가 11명의 기도를 엮어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잇은 채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절박한 이들의 외침을 예민하게 듣고, 불의한 모습을 직시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는 일에 동참할 것'을 소원했다. 하남YWCA 합창단이 특송을 위해 무대로 나와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You raise me up'을 울동과 함께 선보였다.

YWCA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가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소서'를 주제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YWCA가 정의와 평화, 생명이 가득한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소리목상 'YWCA 목적문과 나'가 이어졌다. 다섯 문장으로 나는 한국YWCA 목적문에 자신의 기도를 이어낸 연합회와 회원YWCA, 부속시설과 연변민들레 문화교류협회 활동가 5명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참가자들은 YWCA 목적문과 진솔한 기도를 목상하며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데 힘을 것을 다집했다.



박종화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하남YWCA 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김형 명예연합위원이 신년의 시를 낭독하고 있다.

원영희 연합회 제1부회장의 사회로 사귀고 나눔의 시간인 하례식이 진행됐다. 한영수 회장이 신년 인사말씀을 전했고, 김형 명예연합위원이 김재화 명예연합위원의 신년의 시 '새해 떠오르는 태양은'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이 운영하는 여성청소년 ICT(정보통신기술)교육 프로그램 썬크잡스의 주제곡 'YWCA Dream!'을 배우고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서로 인사하며 점심식사로 함께했다.

새해 떠오르는 태양은

김재화

새해 떠오르는 태양은
태고적부터 어제의 시간과 이어져
끊임없이 희망의 상징으로 빛났으니

새로움 더한 마음에 내리는 광채는
지난해 미처 성취 없이 보낸 날에도
나름의 이유 있었음을 비추어주니

아~ 그것이 나의 행보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과분한 욕망을 자제한 것이라고~

일상의 작은 일들 숨가쁘게 몰아간 날들
행복도 소망도 열두 달 보자기가 감싸 안은 것

이제 또 새롭고 생소한 요구 보태지 않으리
여전히 정의로운 일들,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면서
더 많은 사랑, 희망의 태양으로 비춰보리라.



참가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있다.



제10차 한일YWCA협의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문상순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1월 11일(금)부터 14일(월)까지 일본 교토YWCA에서 한일YWCA협의회가 '한국·일본의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평화를 위해 세계가 움직여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 정부의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10차 한일YWCA협의회가 1월 11일(금)부터 14일(월)까지 3박4일 동안 일본 교토에서 열렸다.

지난 2016년 8월 제9차 한일YWCA협의회 '한국과 일본의 YWCA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동아시아 평화'에서 동부지역 대표로 참석해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해 열정 넘치는 토론 시간을 보냈던 것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었다.

한국YWCA 대표단으로 한영수 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실무자 등 12명, 일본YWCA 후지타니 사토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 실무자 14명이 일본 교토YWCA에 모였다. 개회예배로 한일YWCA협의회 의막이 올랐다.

전 일본YWCA 이사장인 이시이 마야코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이시이 전 이사장은 핵과 방사능 폐기물, 피폭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쟁과 핵 문제는 현 시대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위한 움직임을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여성들이 모여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리인 한일YWCA협의회 의의가 더욱 깊어졌다. 생명의 존엄성과 평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YWCA가 함께 나아가야 함을 거듭 확인했다.

일본YWCA는 모든 일정에 세심한 배려로 한국 참가자들을 안내했다. 이튿날 저녁 만찬에서는 교토YWCA 회장 과 임원진, 회원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한국YWCA 참가자들을 감동시켰고, 2부 행사에서는 사계절의 무언극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YWCA 대표단은 화답의 의미로 한반도기와 조각보를 들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평화를 향한 마음을 나눴다.

전쟁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한국과 일본의 YWCA 여성들은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3.1운동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억압에 맞선 한국 민중들의 저항이자 전세계 피식민지 민중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한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반성 없이 평화헌법 개정을 가속화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꾸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노동자 보상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의 오키나와 헤노코 등 군사기지 건설과 핵무기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인식하고, 생존과 안전, 복지와 평화를 위해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공동 행동계획도 만들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1938년 조선YWCA가 일본YWCA의 조선위원회로 복속된 기록이 스위스 제네바 세계YWCA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양국YWCA 임원들이 합의하고 기쁨으로 서명한 기록이라고 한다.



일본YWCA 대표단의 '사계절의 무언극' 공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교토의 역사를 둘러보며 방문했던 노인요양시설 '에루화센터'가 특별히 인상적이었다. 1910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토지와 식량을 빼앗긴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했다. 이주하며 형편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으나 대부분 저소득·저학력·직업의 불안전성 등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렸고, 당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의 차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사회복지 정책이 개선되고 지자체 재정이 확보되면서 따라 재일동포들이 공적 부조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한다.

한인 2세들이 있는 '고향의 봄' 복지원 활동사진도 보았는데,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시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자리를 이동하던 중에 한인 2세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울동하는 모습을 봤다. 한국YWCA 대표단들은 노래를 부르는 재일동포들에게 다가가 울동에 동참했다. 손을 잡으며 따뜻한 덕담을 나누자 그들은 한국말로 '잘으셨어요' '또오세요' 웃으며 화답했다.

양국 여성들은 과거사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들을 통해 한일관계가 더이상 과거의 역사로 인해 약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할 것을 이야기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처럼 육신이 아닌 성령에 속한 생명과 평화의 마음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자고 결단했다. 



한국YWCA가 주관한 성경공부에서 묵상말씀을 읽는 필자(사진 가운데)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나비되어 훨훨 날으소서

2월 1일(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 영결식'이 열렸다. 윤홍조 마리몬드 대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김복동 할머니의 영정을 들고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와 운구 행렬을 이끌고 있다.

문운희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

우리 모두가 김복동이다

일본군'위안부' 참상을 세계에 알리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 실현을 위해 힘써 온 고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의 노제와 시민장 영결식이 2월 1일(금) 서울광장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갑작스런 한파에도 서울,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온 1천여명의 시민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노란 나비 모형을 들고 서울광장에 모였다. 추모객들은 매주 수요일 집회가 열리는 옛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하며 김복동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다채로운 나비페에 둘러싸여 두 팔을 뻗고 환한 미소를 짓는 김복동 할머니의 초상화가 행렬을 이끌었다. 스피커에는 김 할머니의 생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루빨리 해결 지으라고 일본 정부에 전하세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위로금 받으려고 이렇게 싸웠습니까? 1,000억을 주대

도 안됩니다. 뉘우치고 사죄하십시오!"라고 외치는 할머니의 육성엔 시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94개의 만장을 든 시민들이 행렬을 채웠다. 머리에 나비 핀을 꽂은 아이부터 한복을 차려입은 어르신까지 한 마음으로 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책임자 처벌' '내가 김복동이다' '일본군 성노예 역사교과서 기록' 등 만장에는 김 할머니의 발언과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글들이 가득했다. 한국YWCA연합회 회장단, 실행위원과 실무자 20여명도 단체깃발을 들고 동참했다.

운구행렬은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15여 분 동안 멈춰섰다. 시민들은 일본대사관 건물을 향해 일제히 '일본

은 공식 사과하라', '법적 배상을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울분에 찬 함성을 내질렀다. 추모객들의 발걸음은 다시 매주 수요일 집회가 열리는 옛 일본대사관 앞을 향했다. 분홍 목도리를 두른 소녀상이 담담한 얼굴로 시민들을 맞이했다. 수요시위장소가 김 할머니의 영면을 바라는 추모객들로 가득찼다.


판소리 공연팀 바다소리의 '상여소리' 공연으로 영결식이 시작됐다. 노란 나비 물결이 일렁이는 가운데 시민들은 함께 외쳤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화꽃을 든 시민들이 줄지어 헌화하며 영결식이 마무리됐다.

마지막 유언 '끝까지 싸워달라'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51명이 잠들어있는 천안 망향의 동산에 안치됐다. 김 할머니는 1940년 만14세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피해를 당하다 22살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 할머니는 1992년 67세의 나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렸다. 1993년에는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전세계에 증언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전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나비기금을 설립했고, 재일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암투병 가운데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며 휠체어에 탄 채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대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김복동 할머니는 1월 28일(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는 말을 남기고 깊은 영면에 들어갔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23명이 되었다. 오랜 시간 침묵을 깨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사실을 세상에 공개한 김복동 할머니의 용기를 기억해야 한다. 



故 김복동 할머니의 초상화가 행렬을 이끌었다.



94개의 만장을 든 추모객들이 행진하고 있다.



청소년과 시민들이 노란나비 모형을 들었다.



추모객들이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은 공식 사과하라' 구호를 외쳤다.



2016년 9월 24일 '낙태' (인공임신중절)를 불법으로 규정한 아일랜드 수정헌법 제8조 철폐를 촉구하는 시위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다.

까칠·기쁨·슬픔·버럭
대학·청년Y

2019년 첫 청년토크는 오랜 대립 구도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논란되고 있는 낙태죄에 관한 이야기다. 1월 두 차례에 걸친 온·오프라인 대화를 통해 YWCA 20대 청년회원 4명의 의견을 들었다.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별명으로 신는다.

남자들은 어디로 간 걸까

- 까칠** ▶ 낙태죄 찬반 논란은 예전부터 쭉 있던 이슈야.
- 기쁨** ▶ 맞아. 어릴 때부터 '낙태'는 죄라고 배웠던 것 같아.
- 슬픔** ▶ 교회에서도 '낙태'는 죄라고 들었어.
- 까칠** ▶ 이름부터 바꾸면 좋겠어.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말이라.
- 기쁨** ▶ 자극적인 말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
- 버럭** ▶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한대. 우리끼리도 낙태란 말은 자제하자.
- 슬픔** ▶ 낙태죄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

- 어. 불평등해.
- 버럭** ▶ 형법은 여성과 의료진만 처벌한다고 말해. 여기서 남성은 없어.
- 까칠** ▶ 많은 국가에서 아이는 남성의 성을 따르잖아. 자녀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보여주는 건데 낙태죄에선 남성의 책임이 없네.
- 기쁨** ▶ 여자 혼자 임신해? 아이가 생기는 건 남녀 모두의 책임이잖아.
- 버럭** ▶ 만약 낙태죄에 남성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온 국민이 폐지하라 할 걸?

기쁨 ▶ 격공(격한 공감) 낙태죄가 힘을 얻는 데에는 가부장제도 한몫하지.

무엇이 생명 존중일까

- 버럭** ▶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며 낙태죄가 시행되고 있잖아?
- 기쁨** ▶ 태아의 생명존중? 그럼 여성의 생명은 존중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원치 않은 임신으로 한 여성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네.
- 슬픔** ▶ 나는 가톨릭학교를 다니는데 필수교양 시간에 낙태는 죄라고 가르쳐. 반대 의견이 있어도 쉽게 말 못해. 대학생은 성적의 노예잖아.
- 버럭** ▶ 찬반으로 논쟁하기보다 이 문제로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찾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 슬픔** ▶ 내 몸의 자유는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재판으로 결정되는 게 너무 어이없어.
- 기쁨** ▶ 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 까칠** ▶ 여성의 몸을 왜 국가가 통제하려고 할까?
- 버럭** ▶ 한국은 너무 웃겨. 베이비붐 시대엔 애 좀 그만 낳으라 하고,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니 낙태죄로 막고, 여자를 애 낳는 기계로 취급하는 거지.
- 슬픔** ▶ 영구피임수술 받는 걸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도 했는데 진짜 웃기지 않아?
- 기쁨** ▶ 맞아. 60-70년대는 국가가 낙태버스까지 운영하면서 임신중절을 장려했어. 지금은 가임기여성 지도(map)를 만들고 있더라.
- 기쁨** ▶ 장애인들에게는 동의 없이 강제불임수술을 시키기도 했어. 그런 나라가 이제 와서 생명존중이라고?
- 까칠** ▶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을 국가가 심판하고 범죄화한다면 범인은 국가야.
- 버럭** ▶ 옹소! 여성의 몸은 공공재가 아니야.

까칠 ▶ 10개월간의 임신과 출산 후 맞닥뜨리는 온갖 부담을 감당하는 건 여성이야. 그럼 당연히 인공임신중절도 여성의 선택이지.

우리는 인구정책수단이 아니다

- 슬픔** ▶ 국가는 낙태죄로 인공임신중절이 줄어들다고 주장하는데, 절대 아닐 걸?
- 기쁨** ▶ 인공임신중절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 버럭** ▶ 국가가 인공임신중절을 진짜 줄이고 싶다면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피임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돼.
- 까칠** ▶ 또 미혼모를 지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 기쁨** ▶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했더니 유기되는 아동이 많아지고, 사망하는 여성들도 많아졌어.
- 슬픔** ▶ 맞아.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산모 사망률이 높아지게 돼.
- 버럭** ▶ 만약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마구잡이로 인공임신중절을 하겠어?
- 까칠** ▶ 인공임신중절은 미혼이고 실수로 임신한 여성이 많이 한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기혼 여성들이 더 많이 해.
- 슬픔** ▶ 처음 들었어. 하긴 계획에 없는 아이가 생기면 경력단절, 경제문제로 낳기 어렵지.
- 버럭** ▶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와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사회제도 때문이야.
- 버럭** ▶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누가 애 낳고 싶겠냐.
- 기쁨** ▶ 한국에서는 임신, 출산이 여성에게 큰 희생이고 실제적 손실인데, 여력이 없는 여성에게 강제로 아이를 낳게 하는 국가가 생명존중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 슬픔** ▶ 제발 인구정책이란 이유로 여성의 신체를 이용하지 말았으면 해.



2월 11일(월)부터 12일(화)까지 1박 2일간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총회가 YWCA 버들캠프장에서 열렸다. 15개 회원YWCA 대학·청년 회원과 담당실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연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소통국장
여수YWCA 대학·청년Y

YWCA 청년들이 모였다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총회를 위해 2월 11일(월) 전국 YWCA 청년 회원들이 부천 버들캠프장에 모였다. 캠프장 한켠에 화려하게 꾸며진 포토존이 도착한 참가자들을 반겼다. 청년들은 하고 싶은 활동을 종이에 적고, 사진을 찍는 ‘SNS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했다. 연애, 취업, 세계일주, 여행, 탈핵 등 청년들이 무엇을 꿈꾸고 원하는지 엿볼 수 있었다.

2018년도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장과 기획국장, 소통국장의 환영사로 전국협의회회의 막이 올랐다.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통해 다른 지역 청년들과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함께 어울렸다. 청년들은 서로 이름 대신 불리고 싶은 별칭으로 서로를 부르며 더욱 돈독해졌다.

조별로 나누어 YWCA 목적문을 해석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YWCA 활동을 할 때마다 목적문을 읽었지만 단

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뜻을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청년들은 목적문을 함께 읽고, 해석한 내용과 생각을 나눴다. 청년의 눈으로 새로운 YWCA 목적문을 작성했는데, YWCA 정체성과 목적을 청년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뜻깊은 활동이었다.

4부지역의 활동보고는 영상 상영과 무언극으로 이루어졌다. 1년 동안의 활동이 담긴 사진과 영상은 청년 회원들이 함께했던 순간과 사람을 추억하는 따뜻하고 몽클한 시간을 선사했다. 북부지역은 무언극으로 활동보고를 준비 했는데, 북부지역 운동주제인 ‘청년 대중교통비’를 이야기했다. 혼신을 담은 연기와 유창한 나레이션이 어우러진 무언극은 참가자들의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대학·청년YWCA 조직을 고민하다

개회선언으로 전국협의회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총회가 열렸다. 손지수 전국협의회장은 대학·청년YWCA 전

국협의회 재건 이후 조직 내실화에 힘쓰고 있음을 설명하며, 조직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운영규정도 변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전국운동 주제도 ‘회원YWCA 청년조직 내실화’가 제안됐다. 조직내실화와 청년운동의 방향성에 공감한 정대표들은 운영규정 개정에 찬성했고, 전국운동 주제를 채택했다.

2019년 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정견발표가 이어졌다. 후보자들이 속한 지역 회원들의 깜짝 지지발언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의 지지 속에 전국협의회 임원으로 대학·청년YWCA 회장은 조수정(청주YWCA), 기획국장은 이수진(대전YWCA), 소통국장은 박성연(여수YWCA) 회원이 뽑혔다. 총회가 끝나고 청년들은 “처음 오는 총회라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재밌었다”, “YWCA가 무엇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인지 명확하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날에는 ‘공유경제와 크라우드 펀딩’을 주제로 문헌규 에어블랙 대표의 강의를 들었다. 참가자들은 지역 이슈와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 문제를 논의했고, 조별로 해결 방법을 깊이 고민했다. ‘청년’의 고민과 문제에 ‘청년’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었다. 청년 공간, 환경, 건강, 교통비, 주거 등 다양한 문제와 참신한 해결방안이 나왔다.

이번 전국협의회 총회 일정표에는 취침시간이 없었다. 정유빈 여수YWCA 회원은 “일정표에 취침시간이 없었던 것이 인상 깊었다”며 “청년들이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노는 시간이 있어서 다른 지역 청년들과 부담 없이 소통했다”고 전했다. 전국 YWCA 청년들이 모여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기분 좋은 긴장감을 심어줬다.

참가자 중에는 작년 여름 청년CPR캠프를 떠올리며 재밌고 활동적인 분위기를 기대한 청년들도 많았다. 이번 총회로 함께 의견을 모으고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분위기에 매력을 느꼈으면 한다. 2019년 대학·청년YWCA 활동이 무르익어 깊은 이야기가 오가며 더욱 친밀해지는 YWCA 청년들이 되기를 바란다.



청년회원이 포토존에서 SNS 해시태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협의회 참가자가 한국YWCA 목적문 해석을 발표하고 있다



총회 정대표들이 거수표를 들고 있다



참가자들이 청년 문제와 해결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2019년 Y-틴 전국협의회 총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신연진

Y-틴 전국협의회장·동해YWCA Y-틴 회원

2019년 Y-틴 전국협의회 총회가 1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2박 3일간 YWCA 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20개 회원YWCA Y-틴 회원 79명, 20개 회원YWCA 실무자를 비롯한 연합회 실무자 20명이 참석했다.

나의 꿈은 무엇일까

YWCA 버들캠핑장은 청소년들로 가득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뛰놀며 즐거운 한편 처음 만난 친구들도 많았기에 낯설기도 했다. 전국협의회가 시작하자 어색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서로 알아가며 가까워졌다. 조별 활동인 레크리에이션 '미션을 찾아라!'를 통해 캠핑장 곳곳에 있는 미션을 풀어나가며 한층 더 친해졌다. 작년 Y-틴의 중점운동인 '올바른 역사인식'을 주제로 역사골든벨이 이어졌다. 조별로 함께하는 활동이라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힘쓰신 분들을 알게 됐고, 감사함과 존경심이 생겼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란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지난 1년의 활동을 지역별로 발표했다. 북부지역은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각색한 뮤지컬을 선보였고, 중부지역은 뉴스영상을 제작해 활동 현장을 소개하며 재미를 더

했다. 동부지역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춤을 쳤고, 서부지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연극을 펼쳤다. 유쾌하고 생생한 활동보고에 모두 웃으며 감탄했다.

둘째 날에는 성평등, 청소년 진로, 탈핵, 평화통일을 주제로 부스 활동에 참여했다. '청소년 진로' 부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의 꿈, 미래를 생각하며 좋아하는 것을 발표하고 적었다. 확실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이 많지 않았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는 걸 느꼈다. '탈핵' 부스에서는 우리나라에 핵발전소가 정말 많다는 것을 배웠다. 퀴즈도 맞추며 회원들의 생각을 듣기도 했다. '평화통일' 부스에도 참여했다. YWCA 평화·통일운동 역사를 알아가며 북한이 어떤 말을 쓰는지 배웠다. '통일을 꼭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란 질문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부


스에서는 여성혐오, 역차별에 대한 Y-틴 회원들의 생각을 적고 발표했다. 모든 부스를 돌고 조별로 모여 2019년 운동주제를 정하고 발표했다.

저녁에는 Y-틴 회원들의 재능을 뽑내는 'Show me the Y-틴'이 열렸다. Y-틴 회원들이 오카리나를 불거나 춤을 추고 노래와 랩을 통해 장기를 뽐냈다. 흥에 겨워 함께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게임도 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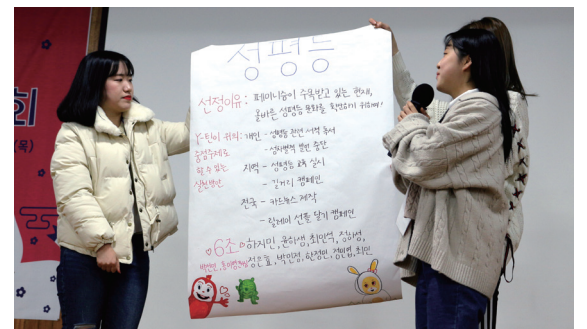
전국협의회 총회에서는 2019년 Y-틴 중점운동을 선정하고, 전국 중앙임원을 선출했다. 2019 Y-틴의 중점운동은 '청소년 진로'가, 슬로건은 "엄마 아빠, 내 꿈은 내가 정해"로 선정됐다. Y-틴 중앙임원도 선출됐다. 투표를 거쳐 전국협의회 회장은 신연진(동해YWCA), 총무는 김현정(대전YWCA)이 선정됐다. 지역협의회 임원은 북부지역 회장 정재희(동해YWCA), 총무 권우영(안산YWCA), 중부지역 회장 김윤지(대전YWCA), 총무 박찬희(청주YWCA), 동부지역 회장 이소향(진주YWCA)이 선출됐다.

출마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 뜨겁고 치열한 투표 현장이 잊히지 않는다. 전국협의회장으로 뽑힐 줄은 몰랐다. 축하를 받으니 얼떨떨하고 즐거운 편, 부담감도 생겼다. 하지만 2019년 전국 중앙임원들과 함께하면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한다.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다. 작은 한국이지만 그 속에서도 언어, 음식, 놀이, 문화 등이 다채롭다는 것을 알았다.

올해 Y-틴 중점운동인 '청소년 진로'에 대한 Y-틴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게 되어 좋았다.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됐다. 평소에도 진로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중점운동을 통해 앞으로 Y-틴이 활발히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게 될 것에 기대가 크다. 많은 것을 배우고, 중점운동에 더욱 노력하며 전국 Y-틴 회원들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Y-틴 회원들이 '역사 골든벨' 문제를 맞추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이 2019년 운동주제를 제안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총회에서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



2019년도 Y-틴 지역협의회 임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박찬희

Y-틴 전국협의회 중부지역 총무
청주YWCA 키다리학교 회원

한국YWCA는 2012년 창립 90주년을 맞이해 청소년을 위한 토요대안학교인 '키다리학교'(키우재! YWCA다운 리더학교)를 열었다. 공동체의식과 사회참여 의지를 가진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키다리학교는 현재 17여개 회원YWCA에서 운영되고 있다. 작년 청주YWCA 키다리학교에 참가한 박찬희 Y-틴 회원의 소감을 심는다.

전국 키다리학교 참가자들이 모였다

1월 25일(금)부터 26일(토) 1박 2일 동안 기다리던 2018 키다리학교 활동 나눔과 졸업식 '키다리와 떠나는 Dreamship!'이 열렸다. 작년 활동을 공유하고 전국에서 키다리학교로 활동한 친구들을 만나는 키다리학교 졸업식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했다.

10개 회원YWCA 키다리학교 참가자 50여명이 대전YWCA에 모였다. 레크리에이션이 시작됐다.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친구들은 처음 만나서 어색했지만 게임을 하며 금방 친해졌다.

대전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함께 돌아 대 전한바퀴'가 이어졌다. 대전의 등록문화재 100호로 지정되어 지금은 미술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대전창작센터부터 개그맨 이영자가 반했다는 성심당까지 돌아다니며

조별로 미션을 풀었다. 유명한 대전 명소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 요즘 십대들에게 많은 인기 있는 방탈출 카페 컨셉으로 '키다리 방탈출'이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진행됐다. 친구들과 머리를 모아 '키다리 리더십'을 주제로 한 퀴즈와 미션을 풀며 방을 탈출했다. 방탈출을 처음 해본 친구들이 매우 좋아했다. 활동보고 시간과 UCC제작 발표를 통해 1년의 활동 내용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역 사랑을 배웠다

작년 청주YWCA Y-틴 키다리학교에서 열린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했다. 여러 활동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활동이 있다. 환경 정화에 도움을 주는 유용미생물인



EM(Effective microorganisms) 활성액을 만들어 청주YWCA회관 근처에 있는 무심천에 뿌렸고, 하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했다. 무심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면 생리대를 만들어 농민장터에 판매했던 활동도 기억에 남는다. 몇 년 전 일회용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불안을 겪었다. 게다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 생리대 성분 검사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생리대를 판매한 대형 기업 등의 후속 대처가 미흡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람들은 발암물질이 없는 일회용 생리대나 면생리대, 생리컵 등 대안 용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청주YWCA 키다리학교에서는 친환경적인 면생리대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비록 일이 있어 판매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키다리학교 친구들이 활동



청주YWCA 청소년 회원들이 면생리대를 만들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뿌듯했다.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면생리대 만들기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이외에도 '역사 바로 잡기' 활동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영화 <아이 캔 스피크>도 시청했고, YWCA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1년 동안의 활동들을 돌아보니 의미 있고 재밌는 한해를 보낸 것 같아 좋고, 2019년도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키다리학교가 전해준 용기

나는 사람들과 금방 친밀하게 어울리는 밝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나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버거웠다.

그런 나에게 키다리학교는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줬다. 간사님과 친구들을 비롯해 YWCA에 만난 사람들은 나를 향해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줬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도와줬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할 때가 많던 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위해 노력했다. 아직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힘들고 무섭지만 점점 나아지고 발전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기쁘고 뿌듯하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YWCA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YWCA에서 보내준 많은 도움과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며 성장하고 싶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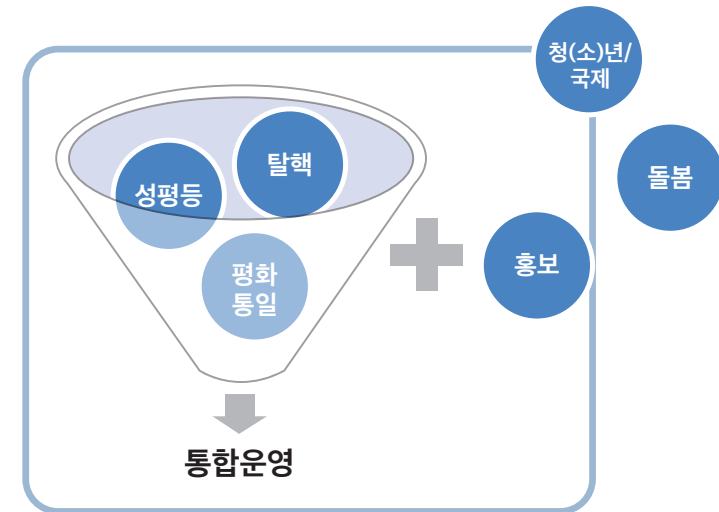


2018년 청주YWCA 키다리학교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중점운동 통합위원회 실험 소통과 협력의 장

배정미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장

급변하는 시대 속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YWCA는 시대에 응답하며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점운동 통합위원회(가칭)' 실험을 시작했다. 중점운동국에 속한 7개 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중점운동 통합위원회' 현장을 소개한다.



중점운동 통합위원회 구조

지속가능한 조직을 꿈꾸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수십년간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정경유착, 부정부패, 빈부격차, 불평등 등 사회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한국사회는 전사회적으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YWCA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YWCA는 1922년 설립 이후 97년을 지나는 동안 52개 지역에 YWCA를 세웠고, 160여개에 달하는 부속시설을 거느린 명실공히 한국 최대 여성운동 조직이 되었다. 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한국YWCA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YWCA 정체성'에 부합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모색이 시급하게 됐다.

그래서 연합회는 한국YWCA 100주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을 위한 전략과 구조를 모색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2018년 12월 28일, 올해 1월 9일, 16일 세 차례에 걸친 '중점운동국 위원장 간담회'가 바로 그 시작이다.

탈핵생명위원회, 성평등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대학·청년위원회, 돌봄과살림위원회, 홍보출판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등 중점운동국 소속 7개 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이사를 비롯한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제일 먼저 합의한 내용은 '중점운동 통합위원회' 운영이다. 2019년을 지속가능한 YWCA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환의 원년

으로 설정하며 기존 사업계획과 위원회·위원의 역할 변화, 실무 배치 변화가 골자다. 보다 근본적인 중점운동 통합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는데 문제의식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한국YWCA 운동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관점의 통합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YWCA의 대표적인 정책결정기구인 실행위원회에서 운동정책에 대한 토론기능이 약화되고, 개별 위원장 역할이 강화되며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개별사안에 집중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위원회 구조와 역할 변화가 필요했다.

둘째, 중점운동국 개별 위원회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행위원을 비롯한 위원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위원은 상임위원회 안에서 자문 또는 전문가로서 실무지원 등의 역할로 구분되고 있다. 위원장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 운영원칙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실무활동가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위원회 지원인력으로 한정하고 있다. 연합회를 비롯한 회원YWCA 실무활동가들의 업무는 회의체 운영, 회원Y교육(포럼), 연대활동, 프로젝트 운영 등의 일상사업 만으로도 상당하다. 일은 많이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자의식을 가진다. 한국YWCA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장의 문제를 분

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기획자로서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동감한 '중점운동 통합위원회'는 한국YWCA가 대표적인 여성단체로서 정책 선도 역할을 다시금 회복하고, 회원YWCA가 실천 가능한 운동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하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대에 필요한 YWCA 운동을 고민하다

2019년 한시적인 모델로 운영되는 통합위원회는 탈핵·성평등·평화통일 3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청년·국제협력·홍보출판위원회 위원장과 이슈에 따른 외부 전문가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한국YWCA 운동정책의 기획, 조정, 통합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YWCA가 반드시 해야 하는 'YWCA 운동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별사업의 정책 공유와 협의, YWCA 운동정책 개발과 운영모델을 위한 제안과 협의, 시대에 발맞춘 YWCA 운동개발 등을 위해 연구와 실행을 병행할 예정이다. 상반기 실행 과제는 2018-2019의 4대 운동과제의 외부환경 분석과 예측, 회원YWCA를 포함한 한국YWCA 내부상황 분석이고, 하반기에는 2018-2019 4대

운동정책 평가와 2020-2021 정책과제 선정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중점운동 통합위원회를 격월로 사안에 따라 회의 또는 워크숍·포럼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실험과 도전이 '장인정신'을 만드는 것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한국YWCA 운동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만들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펼칠 것이다.

한국YWCA는 2017년 창립 95주년 기념식에서 '고백'(과거를 돌아보고 Go Back, 오늘을 告白하고, 100년으로 나아가다 Go 100)을 선포하며 YWCA의 초기정신을 되새기고 새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것을 다짐했다. 세 차례 진행된 '중점운동국 위원장 간담회'에서 또 하나의 '고백'이 있었다.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했다',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위원들의 고백이 그것이다.

한국YWCA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다. '내 안의 하나님', '너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한국YWCA가 위기를 맞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흐름에 앞장서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 세상'이라는 큰 숲을 만들 때다. 연합회는 '중점운동 통합위원회'로 그 첫걸음을 시작했다.

예수님은 난민을 어떻게 대했을까

영화 <가버나움>

정의영

한국YWCA연합회 국제협력위원

난민의 처절한 현실을 고발하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근처 도시였던 가버나움이 처음부터 퇴락과 멸망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와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며 사람들이 회개하길 바랐던 희망의 도시였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정욕은 끝이 없었고 가버나움은 멸망 길로 들어서게 됐다.

영화 <가버나움>을 연출한 나딘 라바키 감독은 주인공 소년 자인의 눈을 통해 레바논의 실상을 차분하지만 강하게 고발하며 레바논의 문제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체의 문제란 점을 강조한다.

레바논의 가난한 동네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렵게 돈벌이를 하는 자인은 십대 소년이라고 하기엔 세상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다. 여동생 사하르의 강제 결혼을 막기 위해 애쓰는 모습과 가출한 뒤 만난 젊은 여성 라헬의 아기를 친동생처럼 보살피는 행동들은 절로 응원하게 만든다.

자인이 법원에서 '부모가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은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자인의 부모는 자신의 딸 사하르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바로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한다.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반복하는 자인의 부모를 보며 분노할 수밖에 없다. 아무런 잘못이 없고, 주변 환경이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해명하는 모습은 '과연 이 사람들이 친부모가 맞는 걸까?' 의심하게 만든다.

무책임한 자인의 부모와 달리 불법 체류자인 라헬은 아들 요나스를 낳을 때 키우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가려 애쓴다. 감옥에 가게 된 라헬은 요나스와 헤어져야 하는 순간에도 요나스만을 걱정했던 모성애가 강한 여인이다. 무책임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보다 모든 상황을 사회, 경제, 환경 탓으로 돌리며 세상을 원망하는 자인의 부모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전쟁으로 난민과 불법 체류자가 생겨났기에 사회 환경이 그들에게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멘 난민은 우리의 이웃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보다 더한 상황에 처해 있는 레바논을 그려본다. 영화에 캐스팅된 주인공들이 모두 실제 난민이거나 불법 체류자라는 점도 놀랍다. 가공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감독의 노력이 느껴졌다. 배우들의 호소력 짙은 눈빛과 표정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가난, 난민, 불법체류라는 단어들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했다. 그러나 최근 제주 예멘 난민이 기사화되면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일고있다. 전쟁으로, 가난으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제주도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나 또한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월 열린 한국YWCA연합회 글로벌이슈 스타디오포럼 '난민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참석한 후 이때까지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예수님이라면 예멘 난민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라는 물음의 답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도 출생과 동시에 난민 생활을 하셨기에 누구보다 고난 받고 소외된 난민들의 삶에 공감하실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예멘 난민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난민 문제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오늘도 전쟁, 가난, 불법체류 등의 문제로 고통 받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는 난민이 처한 현실을 담담히 고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더 충격적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무관심하다면 기독교인이라고 자인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통의 고리를 끊자

영화 <가버나움>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무한한 고통의 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화의 마지막은 깊은 체념으로 무심했던 자인이 정면을 바라보고 환한 미소를 짓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비극 속에서 피어난 자인의 웃음은 우리의 마음 깊이 다가온다.

멸망의 도시 가버나움처럼 사회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곳에서 희망이 싹 트기를 간절히 바란다. 혐오하며 반목하는 그릇된 모습의 어른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고통의 고리를 끊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영화를 통해 불법체류자, 난민인 배우들이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하루 빨리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영화 <가버나움>
감독 나딘 라바키 / 2019. 1. 24. 개봉 / 126분



주인공 소년 자인이 부모를 고소하고 있다.



자인이 감옥에 갇힌 불법체류자 라헬의 아들 요나스를 돌보고 있다.

2019 신년예배



2019년 한국YWCA연합회 신년예배가 1월 3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가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소서'를 주제로 설교했다. YWCA 선배들의 음성이 담긴 'YWCA 선배들의 목소리'와 YWCA 활동가들이 YWCA 목적문을 읽고 다짐한 목소리를 담은 'YWCA 목적문과 나' 소리목상이 이어졌다. 하남YWCA 합창단이 찬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를 불렀다.

2019 정기총회



2019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가 2월 13일(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콥스키홀에서 열렸다. 전국 52개 회원 YWCA 회장, 사무총장 등 대표를 비롯해 연합회 직무상 대표, 실무활동가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예배로 채수일 경동교회 담임목사가 '뱀과 비둘기 사이에서'를 주제로 설교했고, 김연주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오르간으로 찬송가를 연주했다. 사무회의에서는 2018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 및 예산 승인 등을 처리했다.

회원YWCA 신임회장연수

회원YWCA 신임회장연수가 2월 12일(화)부터 13일(수)까지 1박2일간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19개(강릉, 경주, 고양, 광명, 광주, 논산, 목포, 부천, 서울, 서천, 안양, 의정부, 인천, 제주, 제천, 진주, 춘천, 파주, 포항) 회원YWCA 신임회장이 참석했다. 신임회장들은 YWCA 목



적과 정체성, 기독교여성주의 리더십 등 주제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YWCA회장의 사명과 역할을 고민했다.

제10차 한일YWCA협의회



1월 11일(금)부터 14일(월)까지 '한국·일본의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제10차 한일 YWCA협의회가 일본 교토에서 열렸다. 한국YWCA연합회 임원단과 실행위원, 지역대표를 비롯해 일본YWCA 대표단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 워크숍, 토론, 국가별 보고 등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평화헌법 개정을 가속화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했고,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위해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Y-틴 전국협의회 총회



2019년 Y-틴 전국협의회가 1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2박 3일간 YWCA 버들캠핑장에서 20개 회원YWCA Y-틴 회원 79명과 실무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강 '여성, 역사를 쓰다'를 시작으로 역사골든벨, 4부지역별

활동발표, 주제별(성평등·청소년진로·탈핵·평화통일) 부스 체험활동, 장기자랑 'Show me the Y'가 이어졌다. 전국 중점운동 주제로 '청소년 진로'를, 슬로건으로 '엄마아빠, 내 꿈은 내가 정해!'를 선정했고, 신임 회장은 신연진 회원(동해Y)이, 총무는 김현정 회원(대전Y)이 선출됐다.

2018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YWCA 토요대안학교인 키다리학교(키우자 YWCA다운리더) 졸업식이 2월 15일(금)부터 16일(토)까지 1박 2일간 대전YWCA에서 열렸다. 10개 회원YWCA 키다리학교 참가자와 실무자 50여명이 2018년도 지역별 키다리학교 활동을 공유했다. 대전 지역을 탐방하는 '다함께 돌아 대전 한바퀴' 프로그램과 방 안에서 '키다리 리더십'을 주제로 키다리 방탈출게임이 펼쳐졌다.

청소년 탈핵캠페이너 활동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함께하는 탈핵캠페인이 1월 22일(화) 한국YWCA연합회관 앞에서 열렸다. YWCA 청소년 탈핵캠페이너로 위촉을 받은 참가 청소년 20여명은 탈핵과 에너지전환 교육을 듣고 캠페인에 필요한 피켓과 홍보 물품을 직접 만들었다. 연합회는 2014년부터 방학마다 YWCA 청소년 탈핵캠페이너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진행되던 탈핵 불의날 캠페인은 올해 1월부터 매월 넷째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열린다.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총회



2019년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총회가 2월 11일(월)부터 12일(화)까지 1박 2일간 YWCA 버들캠핑장에서 15개 회원YWCA 대학·청년 회원과 담당실무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YWCA 목적문을 연구하며 청년조직 내실화와 YWCA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공유경제와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워크숍도 이어졌다. 총회에서는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2019년도 임원선출과 전국 운동 주제를 채택했다. 신임 회장에는 조수정 회원(청주YWCA), 기획국장에는 이수진 회원(대전YWCA), 소통국장에는 박성연 회원(여수YWCA)이 선출됐다.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지원



YWCA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87포대(약2,175kg)가 1월 25일(금) 중국을 통해 육로로 전달되었다.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는 현재 격월마다 북측에 전달되고 있으며, 평안북도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연대모임



연합회 소식

장미란 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이 2월 12일(화)부터 13일(수)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석했다. 종교·시민·여성·교육 등 부문별 상봉모임이 열렸고, 남북의 민간평화통일운동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출처: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추진위원회)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 강사교육



YWCA가 운영하는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 강사교육이 1월 30일(수)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경기와 인천지역을 담당하는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 소속 강사 22명, 회원YWCA 실무자 7명, 전국 13개 지역경제교육센터 소속 강사와 연구원 22명이 참석했다. 작년 개발한 성인여성대상 참여형·체험형 경제수업교구 '비긴 어게인'을 실습했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YWCA 100주년 위한 기금 전달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이사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이 2월 11일(월) 연합회를 찾아 후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부부인 김미 이사와 전 후원회 이사인 김호연



공군역사재단 이사장이 함께 후원하는 것으로 한국YWCA연합회 100주년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



2월 8일(금) 일본 도쿄 재일본한국YMCA홀에서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한국YWCA연합회는 한국교회대표단으로 초청됐다. 조선 유학생이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YMCA 건물에서 일본 교민과 유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해 2.8독립선언의 정신을 되새겼다.

인사 복직 (2019.2.1) 최수산나 부장(중점운동)
사직 (2018.12.31) 신미희 부장(홍보출판팀)

북한 어린이돕기 모금현황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은택, 권순복, 권진, 김기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희, 김미애,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연,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정림,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수,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숙, 박용옥, 박은경,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준정, 배민기, 배정미, 배정민,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임세현, 임효정, 오시창, 오영란, 완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영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은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민, 이주연, 이지은, 이진희, 이찬희, 이현진, 이현자,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선희,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채정희, 천유란, 최수산나, 최지영, 최형선, 허은경, 한영수, 한주영,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종백	3,525,000
개인기부	신인숙, 하은경	77,290
회원YWCA	강릉, 가계, 고양, 광명, 광우, 광주, 군산직할지부, 김해, 남양주, 남원, 논산, 대구, 대전, 마산, 목포, 부산, 부천, 서귀포, 서울, 성남, 세종, 속초, 수원, 순천, 안동, 안산, 안양, 양산, 여수,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제천,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평택, 포항, 하남	22,651,724
어린이집	전주어린이집, 목포어린이집	1,089,48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길동교회, 유치부, 약전명강교회, 하늘가족교회, 한양대학교회, 여선교회	693,570
기관 및 단체	로페, 르뱅(명동성당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1,016,030
합계		28,037,064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강영은, 강영옥, 고재현, 구금순, 기유리, 기유정, 김미희, 김동희, 김세희, 김선영, 김신희, 김영희, 김혜정, 김현희, 박성희, 박정희, 배민희, 서숙희, 서정현, 성지영, 신경희, 양정숙, 윤정순, 오미다, 이준희, 오희경, 장선희, 조승리, 정순영, 최명진, 한영란, 함추진, 김경민, 최홍림, 시카고시지에 김수연	635,000
합계		635,000

회원YWCA 소식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2월 8일(토) 고양YWCA 회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열렸다. 키다리 청소년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김영은 노무사의 청소년 노동권의 강의를 듣고, 보드게임을 통해 노동법용어를 배웠다. 실제 아르바이트 근로에 대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실습도 이어졌다. 소득창출과 소비과정을 기록해보며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백합회 총회



돌봄회원(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자치모임인 백합회의 총회가 12월 18일(화) 와부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돌봄회원 57명이 모인 가운데 개회예배에 이어 총회에서는 자치회 규정 검토, 2018년 회비 결산 보고와 보수교육비 지출내역 보고, 10년 이상 근속자와 1년 개근자에게 상장과 상품 수여식이 진행됐다. 씬을 위한 '스토리 음악회'와 식사로 마무리됐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가사지원서비스사업 업무협약

1월 31일(목) 부천시청 부천여성청소년과에서 워킹맘 가



사지원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여성들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부천'을 조성하기 위해 부천시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YWCA돌봄과살림협동조합을 비롯한 가사관리사 협력기관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돌봄회원 자치회 송년의 밤



수원YWCA는 12월 8일(토) 수원 노블레스웨딩홀에서 송년의 밤을 열었다. 수원YWCA 돌봄회원 자치회 참석자 150여명에게 지난 한 해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몸풀기 게임과 장기자랑 공연을 펼쳤다. 회원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안산YWCA 장미진 부장

착한 에너지를 위한 청소년 적정기술학교



1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중학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겨울방학프로그램 '적정기술학교'를 열었다.

회원YWCA 소식

생활 속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적정기술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태양광자동차 조립, 깡통스토브로 라면 끓여먹기, LED 스탠드, 미세먼지 측정기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직접 적정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체험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와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촉구했다.

이정부YWCA

김홍례부장

청소년+어르신 친친데이



1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Y-틴 회원 30여명이 준비하고 진행한 청소년 동계자원봉사학교 '청소년+어르신 친친데이'를 열었다. 늘예랑 노인주간보호센터 경증치매 어르신과 연계한 가운데 첫날 '노(know)노(老)데이'에서는 노인문제 카드토론을 통해 어르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은 의정부YWCA 제40회 정기총회를 지원했고, 셋째 날 '친친데이'에는 어르신과 조를 나누어 보드게임을 진행해 친밀감을 더했다. 끝으로 어르신들에게 새해인사로 큰절을 드리며 떡을 대접했다.

동부

거제YWCA

심은옥간사

키다리학교 요리교실



1월 19일(토) 거제YWCA회관 조리실에서 키다리학교 청소년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요리수업을 열었다. 한국조리

과학고등학교 3학년 김주예 학생의 재능기부로 스파게티와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청소년들은 음식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과 요청으로 봄방학에 한 번 더 요리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이사·위원·실무자 영성훈련



2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박2일간 대구 비슬산 호텔아일랜드에서 대구YWCA 이사·위원·실무자 영성훈련을 진행했다. 이천진 목사가 YWCA 영성교재 '청년예수'로 청년 예수의 삶을 재조명했다. 참가자들은 교재 질문을 통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품었다.

마산YWCA

한혜경 부장

에너지 절약 캠페인



마산YWCA는 1월 8일(화) 이마트 마산점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였다. 주민들에게 겨울철 에너지 절약법을 알리고,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양말도 배부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시민들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부산YWCA

김예은 간사

2019 시무예배

부산YWCA는 1월 2일(수) 부산YWCA 일한실에서 자원자



도사와 실무활동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무예배를 드렸다. 찬양을 시작으로 황영주 세광교회 목사의 설교 '모성으로 세상을 섬기는 생명의 담지자들'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덕담을 나누고 새해의 시작을 함께 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2019 신년예배



1월 10일(목) 사천YWCA 강당에서 이사, 실무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신년예배를 열었다. 윤성대 재건동산교회 목사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를 주제로 설교했다. 윤 목사는 예수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의 각 부분이 되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강조했다.

양산YWCA

정은정 간사

신년하례회 개최



1월 8일(화) 양산YWCA 임원단과 실무자 25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1부 신년예배에서는 안종관 벨엘교회 목사가 설교했고, 2부 새해축복메시지 순서에는 참석자 소개와 친교의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로 덕담하고 축복하며, 양산YWCA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2019 신년하례회



울산YWCA는 1월 11일(금) 울산 문수컨벤션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다. 새해시낭송과 예배에 이어 생명운동에 기반한 친환경, 여성, 청년리더십, 공동체 활동이 담긴 YWCA 활동영상을 시청했다. 참가자들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될 것을 다짐했다. YWCA 4대과제 선포식에 이어 새해덕담을 나누며 오찬으로 신년하례회를 마무리했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우리의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찾아서



12월 20일(목) 진주YWCA회관 강당에서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와 (주)GSE도시가스의 후원으로 '진주청년CPR : 우리의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찾아서'를 열었다. 진주청년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식사하고 지역을 만나는 연대(Connect), 여성주의, 몸살림 등 관심거리를 말하는 놀이(Play), 고민과 선물을 나누는 회복(Recover)이 진행됐다. 무한경쟁으로 지친 청년들이 크

회원YWCA 소식

리스마스를 만끽하며 재충전했다. 진주YWCA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청년과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진해YWCA

김자영 간사

제1회 진해여성인권 영화제



1월 11일(금) 진해YWCA 대강당에서 제1회 진해여성인권영화제를 열었다. 진해 시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체류자들의 고통 받는 현실을 담아낸 <Don't Tell Anyone>(아무한테도 말하지마) 영화를 상영했다. 이어진 시네토크에서 참가자들은 불법체류자가 경험하는 폭력·마약밀매·빈곤·학대 등 부당한 상황을 토론했다. 진해YWCA는 앞으로도 여성인권영화제를 열고 시네토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

Y-틴·키다리학교 총회



12월 22일(토) 창원YWCA 대강당에서 'Y-틴, 키다리학교 총회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청소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에서는 Y-틴 회장을 선출했고, 크리스마스 파티로 스파게티면과 마시멜로우를 높이 쌓는 협동게임인 마시멜로우 챌린지 등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협동게임을 통해 '실패는 행복으로 가기위한 길'임을 깨닫고, 청소년활동이 날로 발전하길 기대했다.

포항YWCA

이유정 간사

내 꿈, 지금 만나러 갑니다!



포항YWCA는 포스코1%나눔재단 지원으로 12월 15일(토) 부산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직업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포항 소재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사회복지사 등 42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소방관, 의사, 연예인 등 90여개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06년부터 포항YWCA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재능기부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복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설맞이 독거어르신 선물 나눔



1월 28일(월) 강릉YWCA회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하는 '설맞이 사랑의 꾸러미 나눔행사'를 열었다. 홀로 사는 어르신 150명에게 떡, 즉석식품인 사골곰탕과 미역국, 멸치볶음을 비롯한 반찬과 약과를 넣은 식품키트를 각각 전달했다. 제18전투비행단의 기부금 100만원과 싱싱축산에서 나눠준 달걀 1120줄도 선물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크리에이티브 잡 토크콘서트



1월 19일(토) 크리에이티브 잡 토크콘서트가 서울YWCA 강당에서 열렸다. 청소년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컨설턴트'를 창직한 이종원 멘토, 고등학생 때 창업한 경험이 있는 박상욱 멘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쇼호스트 이향주 멘토가 강연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이야기를 듣고 꿈과 사회변화를 위해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미국스타벅스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앙트러프러너십(기업가정신) 교육이다.

원주YWCA

김민영 간사

김태영 회장 대통령 의장표창



2018년도 강원지역 의장표창 전수식 및 통일강연회가 12월 18일(화) 춘천베어호텔에서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상임위원인 김태영 원주YWCA 회장이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의장표창을 받았다.

인천YWCA

유성은 간사

2018 전직원 송년예배

12월 13일(목) 인천YWCA 전직원 70명이 모인 가운데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예배가 인천YWCA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1부는 예수 탄생을 축하했고, 한 해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2부에서는 인천YWCA 본부와 부속시설 직원을 소개하며 교제 시간을 보냈고, 영화 <실버벨>을 감상했다.

속초YWCA

주미란 간사

실무자교육 '양성평등과 성평등 프레임'



속초YWCA는 1월 4일(금) 속초YWCA 세미나실에서 신년 실무자교육을 열었다. 동해YWCA 실무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YES 성평등NO 프레임의 형성과 확산'을 주제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이 강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양성평등' '성평등' 용어 논쟁을 이야기하고, YWCA 성평등운동의 내용과 왜곡되어선 안될 가치를 논의했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2019 직원연수

광양YWCA는 1월 31일(목)부터 2월 1일(금)까지 1박 2일간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다'를 주제로 고흥수련원에서 광양YWCA 직원연수를 열었다. 김양임 회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임채일 강사의 '에너지그램으로 알아보는 나와나'가 이어졌다. 본부와 부속시설 직원 11명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과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회원YWCA 소식



광주YWCA 손유영 부장

소심당 조아라기념사업회 정기총회



1월 24일(목) 소심당 조아라기념사업회 제7차 정기총회가 광주YWCA 4층 강당에서 열렸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보고, 2018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9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임원인준이 진행됐다. 광주YWCA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경린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다. 참가자들은 조아라 선생 정신계승사업과 기념관 운영을 통해 승고한 정신을 이어 지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을 다짐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신년예배와 시무식



1월 2일(수) 서귀포YWCA 대강당에서 회장단과 이사, 실무자 30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예배와 시무식을 열었다. 예배 설교를 맡은 이상호 서귀포중앙교회 목사가 서귀포YWCA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기를 당부했다. 예배와 시무식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떡국

을 먹고 신년덕담을 나누며 2019년에는 희망찬 서귀포YWCA가 되기를 다짐했다.

순천YWCA 손모아 간사

설맞이 선물 바자회



1월 22일(화)부터 23일(수)까지 한국YWCA 중점운동인 탈핵생명,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설맞이 선물바자회'를 순천YWCA회관에서 열었다. 순천YWCA 이사, 회원을 비롯한 시민 100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돌김, 들깨·참깨강정, 가래떡, 마른멸치 등을 판매했다. 참가자들에게는 환경보호를 위해 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공지했다. 수익금은 순천YWCA 중점운동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



12월 22일(토)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사정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힘든 아동들에게 매년 열리는 희망을 전달하는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이 열렸다. Y-틴과 대학·청년Y 회원 24명은 산타복장을 갖추고, '청소년 산타'로 분장해 여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등에서 신청 받은 아동 6명의 가정에 각각 방문했다. 카드와 선물, 케이크를 전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익산YWCA 홍진 간사

고령자인재은행 홍보캠페인

익산YWCA는 성탄절을 맞이해 12월 24일(월) 익산



YWCA회관 앞에서 장년(고령자)인재은행 홍보캠페인으로 '사랑의 떡' 나눔과 구인·구직 무료상담을 진행했다.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는 익산YWCA 장년(고령자)인재은행은 5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 무료 취업알선기관으로 노인들의 경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50주년 기념 간담회



전주YWCA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1월 15일(화) 명예이사, 증경회장 등 14명을 초청해 '50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었다. 명예이사과 증경회장들은 50년을 맞는 사회와 자원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나누고, 전주YWCA를 향한 바람 등을 이야기했다.

제주YWCA 장혜원 간사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제주YWCA는 12월 15일(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다

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말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제주신화월드테마파크를 견학하고, 댄싱오스카, 플라잉월, 롤러코스터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탔다. 참가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중부

논산YWCA 조은숙 주임

충청남도 민관협치 유공기관 표창



12월 18일(화)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충청남도가 주최한 '공동체 활성화 성과공유회 및 민관협치 포럼'이 열렸다. 민관협치·마을공동체·도시재생 분야 활동가와 전문가,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논산YWCA의 '마을과 함께 키우는 아이들 생명숲돌봄센터' 운영사례가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충남도지사에게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

대전YWCA 안소진 간사

결식노인을 위한 설 큰잔치



대전YWCA는 설 명절을 맞이해 충남대학교 LINC+사업단과 공동주최로 1월 31일(목) 대전 중촌 효심정에서 '행복가득 설 큰잔치'를 열었다. 노인무료급식소 '효심정'을 이용하는 결식노인 200명에게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혈압측정, 혈당검사, 의학적 상담 및 호흡 맥박 체크 등 건강진단으로 봉사했고, 따뜻한 점心和 선물을 전달했다.

회원YWCA 소식

세종YWCA

김영옥 간사

신년예배와 시무식



2018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19년을 힘차게 시작하기 위한 신년예배와 시무식이 1월 2일(수) 세종YWCA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2018년을 정리하며 일하며 느낀 점과 새해 다짐을 나눴다. 세종시건강증진연구회의 '스텝벨런스워킹PT'를 통해 몸을 건강하게 이완하는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떡국을 먹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화합을 다졌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지구별도서관 문화교실



제천YWCA 지구별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해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1월 15일(화)부터 4회에 걸쳐 '레고를 활용한 이야기 꾸밈터' 교실을 운영했다. 아동의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레고를 통해 표현하는 놀이활동으로 상상력과 표현력을 자극하고,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천안YWCA

강규희 부장

사랑나눔음악회 후원금 전달식



1월 24일(목) 제29차 천안YWCA 정기총회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후원금은 작년 11월 29일(목) 열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음악회 '영화 같은 저녁'을 통해 마련된 기금 총 900백만원으로 탈북청소년단체와 교회 선교비 등에 전달됐다. 후원단체는 천안YWCA 사회선교위원회, 대학·청(소)년위원회, 장학위원회의 논의와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충주YWCA

이예림 간사

Y-틴 연말봉사 '따뜻한 겨울을 선물합니다'



충주YWCA Y-틴 회원들은 2018년 동안 직접 만든 창업물품인 켈캔들을 판매하고, 아나바다장터에서 중고품을 팔아 연말봉사기금을 마련했다. 12월 29일(토) Y-틴 회원 70여명은 수익금으로 생필품과 단열재를 구입해 독거어르신 가정에 전달하고, 창문에 단열재 에어캡을 붙였다. 전등을 교체하고, 매트리스를 청소하는 등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께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청주YWCA 모금콘서트



12월 4(화) 청주CJB미디어센터 에덴아트홀에서 '한영애와 함께 꽃이 피는 시간'을 제목으로 청주YWCA 모금콘서트가 열렸다. 청주YWCA 이사과 실무자, 회원을 비롯한 청주 시민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수 한영애와 착한밴드 이든, NA EM(나엠)이 무대를 꾸몄다. 청주YWCA의 활동과 운동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여세계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성이 만드는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여세!

2018년 6호

두 세계, 대한민국 젊은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 1020 여성들, 그들은 누구인가
- 한국사회에서 1020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한국사회 1020 여성 이슈들
- YWCA 현장이야기

구입문의 YWCA 아카데미 02-774-9703
ywcaacademy@naver.com
가격 10,000원



YWCA (사)한국 YWCA연합회